

## 公演藝術교육의 새地平

高 勝 吉  
(中央大 演劇學科)

우리나라에서 公演藝術系 學科라고 하면 演劇學科, 舞踊學科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음악 계열의 학과에서 음악극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공연 예술 계열 학과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의 음악 계열 학과에서 오페라, 뮤지컬, 창극, 민속극 등을 專門的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韓國의 公演藝術 敎育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演劇學科와 舞踊學科뿐이다.

그런데 공연 예술 교육을 차질없이 해야 할 연극학과와 무용학과의 敎育現實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문제점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나 교수에게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敎育政策을 立案·實行하는 문교 당국이 올바른 정책을 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심각성은 크게 느껴진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演劇學科의 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7 개에 이르며, 무용학과의 수는 20 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외형상의 숫자만을 보면 그런대로 말은 바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어떤 연극학과와 무용학과는 창설된

지가 40 년에 가까워서 역사나 연륜으로 볼 때에 상당한 敎育的 業績을 쌓아 놓았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른 학문과 예술 분야의 교육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면, 최근의 40 년은 그야말로 桑田碧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눈부신 발전이 이룩된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의 학문적·교육적 여건이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 여건은 20, 30 년 전에 비해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 매년 한두 개 정도의 대학에서 문교부 인가를 얻어 새롭게 공연 예술계 학과의 간판을 내걸기도 하지만, 이전에 창설된 대학보다 교수진과 시설 면에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30, 40 년의 연륜을 지닌 공연 예술계 학과가 오랜 연륜에 걸맞는 보다 확실한 발전을 위해 입학 정원에 상관없이 우수한 교수진의 수를 대폭 늘린다는 눈에 띄게 시설을 확충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대부분의 공연 예술계 학과는 現狀維持에 머물거나 이전의 敎育水準을 쫓아가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 현실이 부진을 던치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현장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모아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크게 드러난 몇 가지 問題點에 대해 改善을 촉구하는 정도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첫째,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은 정규적인 初期敎育의 바탕 위에서 정상화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공연 예술을 제외한 문학, 미술, 음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어 그 교육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공연 예술 계통의 연극교육과 무용교육은 學界와 藝術界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중·고등학교의 正規科目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육교육의 일부로서 행해지고 있는 무용교육은 중·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에 이름을 내걸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예술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연극교육은 대부분의 국가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西歐와는 너무 관이하게 그 입지 기반조차 構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극교육은 예술교육이라는 면을 떠나서도 '말하기'의 교육을 통해 국어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실제적 利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행을 늦추고 있다. 그동안의 국어교육에서 말하기 교육과 연극을 통한 創意的敎育이 충실하게 행해져 왔다면 특별히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나, 필답식·객관식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인해 有名無實하게 끝난 이상 연극교육이라는 보다 원대한 시각에서 완전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연 예술 계통의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됨으로써 公演藝術이 社會敎育의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社會的 認識을 獲得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예술이건 간에 사회적 인식이 없이 存立하기는 어렵다. 공연 예술의 역사를 되

돌아 보아도 공연 예술이 융성했을 때에는 반드시 社會的 認識이 뒤따랐다. 社會的 認識이 두터워짐에 따라 藝術的 水準이 향상되며 이렇게 높여진 예술적 수준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질 좋은 교육을 요구한다. 사회적 인식과 교육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兩者의 내용을 충실하게 한다. 公演藝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다른 예술 분야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정착될 때에 완벽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은 財政的 基盤이 튼튼할 때에 기대한 바의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예술교육이건 간에 좋은 환경과 시설 아래서 바람직한 교육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이 그리 좋지않은 환경과 시설에서 행해져 왔다는 점과 공연예술교육이 그 자체의 성격상 특별한 환경과 시설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 문제는 看過할 수가 없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연예술교육은 어떤 예술교육 못지않게 돈이 많이 든다. 음악교육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실제로는 공연예술교육보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공연예술교육은 악기나 캔버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육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공연 예술계 학과는 빈약한 사립대학의 재정에 의지해서 교육을 행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나은 서울의 국립대학이나 지방의 명문 국립대학에 연극학과와 무용학과가 創設됨직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30, 40년 동안 그런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 빈약한 사립대학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공연 예술계 학과의 형편은 문학, 미

술, 음악 계열의 학과가 대부분 국립대학에 설치되어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차이를 느껴게 한다. 이것은 藝術教育에 대한 문교부의 시각이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偏向的이었는가를 알려주는 구체적 실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정 형편이 좋은 국립대학에 공연 예술계 학과를 설치하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공연 예술계 학과를 제정 기반이 약한 사립대학에 자꾸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에 설치하라는 제안은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립대학에 공연 예술계 학과가 설치될 경우, 이것이 하나의 이상적 모델이 되어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공연 예술계 학과에 파급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교부가 모든 공연 예술계 학과의 수준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두서너 개 학과의 교육적·재정적 수준을 관리하는 가운데 모든 공연 예술계 학과의 발전을 유도·촉진할 수 있다면 응당히 그만한 일은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은 이론 교육이 立地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정상화될 수 있다. 얼핏 듣기에 당연한 提案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과 편성과 교수진의 편성을 보면 不均衡的이라고 할 만큼 理論보다는 實技에 치중되어 있다. 理論科目의 경우에도 좋은 강의를 구하지 못했다든가 수강자가 무관심했다든가 하는

이유로 유명무실하게 運轉되고 있어서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과 편성에서 이론 과목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러한 실기 위주의 교육은 대학교육 본래의 비판적 능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徒勞式的의 교육 방법이나 일반 학원에서의 교육 방법으로는 기존의 것을 모방·답습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매우 불리하다. 그것보다는 현재의 이론 과목을 확장하거나 착실히 운영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폭 넓은 理解와 批判力을 갖게 함으로써 창의적 공연 예술에 눈을 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이 실기 전공자만이 아니라 이론 전공자의 배출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까지 실기 전공자만을 배출했다고 해서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 목표가 전적으로 실기 전공자의 양성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현재처럼 이론 전공자의 배출이 불가능하거나 위변해서는 공연 예술계 학과의 교육이 正道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미래에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理智的 批判과 創造的 感性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고 어느 한편만이 우세한 藝術教育이 제대로 구실을 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